

# 주간기도정보

2024. 10. 8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느니라”

‘신의 존재’ 믿지 않는 한국인...26개국 중 최하위권

종교성 낮지만 명상운세 등 행위는 크게 높아



최근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IPSOS)가 세계 주요 2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에서 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적 영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토대로,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넘버즈 254호’에서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 분석했다.

세계 26개국 성인 대상으로 ‘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힘이나 영’에 대한 믿음을 물어본 결과, ‘경전(성경·꾸란·토라 등) 상의 신을 믿음’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 말고 더 높은 힘이나 영을 믿음’이 20%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2%,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43-45% 정도로 나타났다. 한국은 3명 중 1명 꼴인 33%로 26개국 평균(61%)보다 크게 낮았으며, 일본(19%)과 함께 조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천국, 지옥, 영, 악마 등 종교적 개념을 제시한 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한국인의 인식 비율은 30%대로 26개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페루,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가장 상위를 차지했다. 한국인의 ‘신앙 활동’ 역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교회, 절 등 예배 장소에 가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1%로 조사국 중 중간인 13위, 예배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4%로 22위에 랭크됐다.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생활의 만족도 입소스 분석 결과, 30개국 평균은 72%였지만(1위는 인도네시아 89%)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50% 수준으로 일본과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다른 종교 가진 사람 불편하다’는 인식은 조사국 중 가장 높았다. ‘종교를 믿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된다’는 등의 종교와 삶의 연관성은 26개국 중 20위 수준으로 낮았다.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은 한국이 35%로 102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종교전환율, 즉 살면서 종교를 갖거나 버리거나, 혹은 종교를 바꾸거나 하는 변화를 준 이들은 한국이 53%로 102개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종교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16%로 102개국 중 84위였다. 1위는 인도네시아(98%)였고, 미국은 42%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무종교인의 명상 같은 종교적 행위나 운세 같은 무속 행위를 최근 1년간 해본 경험은 ‘명상’이 한국 55%로 가장 높았고, 운세도 39%가 경험해 낮은 ‘종교성’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한국인은 또한 조사 대상국 중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본(30%)', '홍콩(20%)' 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종교와 거리가 멀지만 종교성이 높은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린도후서 4:4,6)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 이다(사편 10:4)

하나님, 주의 은혜를 떠나 스스로 선 줄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방황하는 한국인들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복음에 무지하고 무관한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무기력함에 빠진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근원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한국교회에 비추사 구원을 얻은 기쁨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주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악한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어두운 심령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찬송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 2. 북한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콜드체인’ 등 160만 달러 규모

제재 면제 유효 기간은 12개월,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미정...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신청한 콜드체인 장비와 위생·식수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북한에 반입될 물품들은 의료 장비, 식수위생장비, 제품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하며 운반하고 저장하는 콜드체인 장비, 지게차 등 창고 장비, 트럭 10대 등 총 115종, 금액으로는 약 167만 달러(약 22억 원)에 달한다.

1718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23일 자 서한을 공개하며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제재 면제 승인 물품은 크게 두 가지로,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과 위생·식수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의료 장비는 태아 심박수 감지기,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복부 수술도구 등 임신·분만 관련 장비와 증기 살균기 등 감염 방지 관련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니세프는 백신 프로그램 관련 제재 면제 물품에 대해 “유니세프가 집중 관리하는 50개 지역의 포괄적 응급산과 신생아서비스(CEmONC)와 기본 응급산과서비스(BEmONC) 현장에서의 감염 예방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드체인 장비에는 중앙의 백신 보관 용량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워크인 콜드룸 2대와 부속품, 온도 유지 장비 등 32종이 포함된다. 일부는 백신이 접종소에 도달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보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생과 식수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품은 총 83종으로, 수압 게이지, 필터, 우물 드릴 파이프, 공기 정화기 등이 포함됐다. 유니세프는 이 장비들을 통해 “북한 주민 1만 263명과 유치원 2곳, 유아원 2곳에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일부는 긴급상황 대응 혹은 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올 여름 압록강 유역 폭우로 피해를 입은 자강도, 양강도 등 수해지역 주민들이 식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일지 주목된다.

또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엔진, 고속 충전 장치인 슈퍼 차저, 윤활유 등도 면제 목록에 포함됐다. 유니세프는 서한에서 국제 직원들은 지원 물품들이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재 면제 물품의 출발지와 도착지는 ‘결정될 예정’이라고만 덧붙였다.

한편 제재위는 이번 유니세프 제재 면제의 유효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내년 9월까지 관련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던 북한이 지난해부터 제한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지원 물품의 반입은 지연되고 있어 이번 제재 면제 물품이 언제 북한에 도착할지는 알 수 없다(출처: VOA, 자유아시아방송 종합).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며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10:12,14)**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누가복음 10:36-37)**

하나님, 재난과 기근으로 인한 가슴 아픈 소식이 끊기지 않는 북한에 유엔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신 손을 들어 지원품이 속히 전달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 정직한 모니터링으로 필요한 곳에 온전한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욱 주께 간구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북한에 계시하여 주십시오. 위정자와 당국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때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함께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의 결핍이 없는 영혼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조건 없는 이웃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녀들에게 독초 먹이는 ‘성오염 교과서’, 개정돼야...

성혁명교육 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개최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및 국민대회가 9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조정훈·조배숙 의원실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복음법률가회, 성혁명교육반대학부모연합, 진평연 등의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1부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격려사 후 2부 기자회견 발제와 국민대회 발언이 이어졌다.

격려사에서 행사를 주최한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교육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를 위해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그중 하나가 바로 교과서 문제”라며 “과거 우리는 ‘교과서에 있다’고 하면, 보편타당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성인인 우리도 그런데, 세계관과 세상을 배워나가는 초·중·고교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는 교과서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세계관, 오늘 주제인 성과 남녀 간 역할과 입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올바른 성 정체성과 성교육, 창조 질서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역할 등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신규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저희와의 약속이 상당 부분 준수되지 않은 채 출판까지 이뤄졌다. 건국과 국가 정체성 폄하, 종교 편향은 물론이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혁명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심각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문화 막시즘에 경도된 집필진이 저술한 교과서들의 폐해에 대해 전 국민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이용희 대표(에스더기도운동)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 외쳐야 할 때이다. 성도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에 목숨 걸고 싸우겠는가”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순교적 각오를 갖고 맞서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여고생이 친구 10명 중 동성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더라. 이런 교육을 이미 다 받고 있다. 이렇게 큰 아이들은 평생 이 생각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잠언 22장 6절 말씀처럼 어렸을 때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사단은 아이들에게 독초를 먹이려고 달라붙는데도 교회가 앞뒤 못 가리고 몰라서는 안 된다. 지금이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밝혔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과 체계가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 숨통을 조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라며 “사상·교육·학문·법 등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겨야 눈에 보이는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는 “막상 새 교과서를 보니 바뀐 게 없었다”면서 “교회와 성도,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기도하고 행동하면 성오염 교과서가 반드시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독려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국민일보 종합).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에스겔 37:4-5,10)**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하나님, 한국교회와 시민단체가 반성경적인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해 긴급하게 모여 목소리를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교과서가 공신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어지럽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악한 세력을 꾸짖어 주십시오. 교회와 기성세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에 베푸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다음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들이 목숨 걸고 기도로 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와 같은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들어가 주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